

## 울산 반구대 문화유적의 보존과 개발

임 세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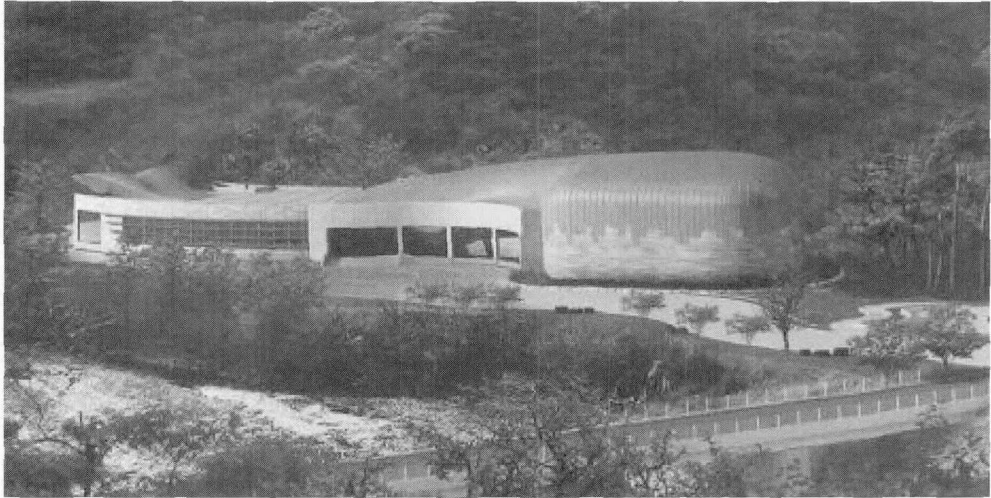
- I. 머리말
- II. 암각화 유적 보존의 특수성
- III. 암각화와 관광산업
- IV. 유적개발의 방향과 과정의 검토
- V. 유적의 개발 방안
- VI. 선택의 시점

### I. 머리말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유적의 보존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지도 벌써 6년 여가 흘렀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은 2001년 월드컵을 앞둔 울산시의 반구대 유적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안이 확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가 있는 대곡천 계곡 안에 다양한 놀이시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국도 35호로부터 2차선의 도로를 대곡천을 건너는 반구교까지 개설하고 또

---

\*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도 1 대곡천 계곡에 들어설 선사문화전시관

반구교 옆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계획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추진되었다면 현재의 대곡천 계곡은 매우 큰 훼손을 입었을 것이며 암각화 유적의 주변은 놀이장소로 변모되어 있었을 것이다.

학회와 시민단체들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계획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반구교까지 확장될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좁혀졌고 반구교 옆의 대형 주차장도 반구교에서 1.3킬로미터 산 위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 후 산책로가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과거 주차장을 세우려던 반구교 옆에 건평 400평이 넘는 대형 선사문화전시관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sup>1)</sup>.

이 선사문화전시관은 주차장보다도 더 큰 시설물로서 주차장을 이전시킨 효과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특히 대곡천 강물에서 몇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계곡이 가지고 있는 선사시대의 환경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이에 지금까지 반구대 암각화의 선사유적 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 온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대곡천변의 전시관 건립을 반대하고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를 포함하는 대곡천 계곡 주변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글은 차체에 이 유적을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보존과 개발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도 함께 짚어보기 위한 것이다. 늦은 듯 하지만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글이 지금이라도 대곡천 일대의 암각화 유적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II. 암각화 유적 보존의 특수성

### 1. 선사유적 보존의 어려움

대부분의 선사시대 문화재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는 고인돌이나 선돌 등의 거석문화유적들과 암각화나 암채화 등의 바위미술작품들이다. 이들은 일반인들에게 그 중요성이나 유적으로서의 의미가 잘 인식되지 못함으로써 쉽게 훼손되거나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수가 이미 멸실되고 말았다. 겨우 남아 있는 것들은 풍화되거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 그리고 인위적 훼손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고인돌이나 선돌들은 농경지의 개간이나 도로의 개설, 주택단지의 새로운 개발 등으로 인해 최근까지 급속도로 숫자가 감소되고 있고, 암각화 역시 최근 일반에게 선사시대의 유적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그들의 호기심으로 인해 접촉과 낙서 등으로 훼손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사유적의 훼손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지금 이러한 훼손 원인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21세기가 지나기 전에 세계의 중요한 선사유적들은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 특히 암각화는 세계의 몇몇 유적을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거의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국제적 또는 각 나라의 문화재 보호기구로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중국이나 몽골, 러시아 등의 엄청난 숫자의 암각화 유적들은 대체로 1980년대 이후에야 학계의 조사연구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지금도 많은 수의 암각화 유적들은 미발견 유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최근 러시아나 몽골 등지를 조사하면서 나는 많은 암각화 유적들이 학계에 소개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훼손행위나 자연현상들로 사라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약간의 조치만 취해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란 점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 2. 암각화 유적의 파괴 원인

암각화 유적의 파괴 원인을 자연현상과 인위적 현상으로 구분하여 보자. 자연현상에 의한 파괴는 바위 자체의 자연현상에 의한 분해, 식물의 생장에 따른 파괴, 지각의 변동에 따

큰 파괴, 동물들에 의한 파괴 등을 들 수 있겠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파괴는 지진이나 산불, 홍수 등 특수한 예를 제외하면 그 속도가 느리며 현재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최대한 속도를 지연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나 자연현상의 경우도 어떤 유적은 파손의 위험이 매우 커서 정밀한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방책을 빨리 세워야 할 것이다. 천전리 암각화가 새겨진 암괴는 앞으로 경사져 있으며 암괴의 형태가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쓰러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sup>1</sup> 이러한 경우는 즉각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반구대 암각화의 바위면은 물에 취약한 셰일로 댐의 수면 아래에 수십 년 잠겨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빨리 수면 위로 암각화가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다.<sup>2</sup>

인위적인 파괴로는 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 댐의 건설, 관광객에 의한 훼손, 산성비와 같은 공해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학술적인 목적의 조사행위(사진, 탁본, 복제 등의 제작)에 의해서 훼손되는 일도 적지 않음은 나를 비롯해서 조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위적 파괴는 자연현상의 위험성보다 더 심각하다. 20세기 후반 이후의 급격한 산업개발은 이미 많은 유적들을 사라지게 하였으며 댐으로 인한 훼손도 20세기 말까지 수없이 많다.

반구대 암각화 유적처럼 댐의 건설로 인해 파괴된 암각화 유적들로 노르웨이(Norway)의 남포르센(Namforsen) 유적, 포르투갈의 타고스 계곡(Tagus Vally) 유적들을 유럽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고,<sup>3</sup> 북미지역에서는 콜럼비아 강 유역의 암각화들이 댐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캔사스 주의 레이크 캐노폴리스(Lake Kanopolis) 호수의 수위 변화로 훼손이 계속되는 인디언 힐(Indian Hill) 암각화 유적이나 아리조나와 유타 주에 걸쳐 있는 레이크 파웰(Lake Powell) 호수에 잠긴 40여 암각화 유적 등이 모두 궤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sup>4</sup>

반면 포르투갈의 포즈 코아(Foz Coa)의 댐 건설은 암각화 유적의 대표적 보존 사례로 들 수 있다. 1995년 포르투갈 북부의 구석기 암각화 유적들이 포즈 코아 댐의 건설로 물속에 잠길 위기에 처했고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과 전세계의 학자들을 비롯한 암각화를 사랑하는 사

1 이수근, 「천전리 암각화의 안정상태 및 보존대책」, 『한국암각화연구』 6(한국암각화학회, 2005), pp.65-66.

2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연구』(울산광역시, 2003), pp.238-239.

3 Jean Clottes, *World Rock Art*(Los Angele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2002), p. 124. 이외에 포르투갈에서 댐으로 수몰된 암각화 유적에 대해서는 Mila Simões de Abreu, "Dams and Rock Art in Portugal: A match made in hell" ([http://www.rupestre.net/tracce\\_php/modules.php?name=News&file=article&sid=18](http://www.rupestre.net/tracce_php/modules.php?name=News&file=article&sid=18))을 참조.

4 Georgia Lee, *Rock Art and Cultural Resource Management*(Calabasas, California: Wormwood Press, 1991), p.35.

람들이 거센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후 1996년 새로 선출된 수상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는 암각화 유적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댐 건설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하고 일곱 명의 장관과 함께 유적을 방문하였으며 암각화 유적의 중요성과 당시 상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사를 중지시키게 되었다.<sup>5</sup> 정부는 유적이 있는 코아 계곡을 고고학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고 댐은 훨씬 더 하류로 이전하게 되었다. 현재 유적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세계적인 유적으로 관광자원이 되어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암각화 유적의 보존사례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암각화를 지켜낸 긍지를 가지고 스스로 암각화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조사로 훼손되는 것은 주로 탁본, 촬영, 실측 복제 등의 제작과정에서 볼 수 있다. 탁본은 동양의 전통적인 조사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애용해왔고 지금도 국가기관에서조차 많은 탁본을 제작하고 있지만 그것이 유적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암각화는 물론 비석 등에 대한 복제 작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의 폐해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복제를 만든 후 그 형틀을 제거하면 암석표면에는 라텍스나 실리콘 같은 물질들의 지울 수 없는 자국들이 생기게 된다. 결국 암각화의 외관을 영구적으로 원상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 뿐 아니라 과학적인 연대측정 등을 불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학술적 연구에도 큰 장애를 주게 된다.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의 실리콘 복제가 몇 차례나 일어났는지는 조사해보지 못했으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여러 대학의 박물관 등에 복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적어도 서너 차례 이상의 복제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제품 제작의 결과 반구대 암각화의 표면에는 왁스칠이 남아 있으며 겨울에는 그 부분에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바위 표면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표면의 박락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실리콘의 찌꺼기들이 아직도 암각화 표면에 많이 남아 있음은 현장을 답사하면 쉽게 볼 수 있다도2.

또 최근에는 많은 유적들이 관광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무분별한 관광개발로 인한 훼손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관광객의 암각화 유적 접근은 낙서 등 돌이킬 수 없는 유

<sup>5</sup> João Zilhão, "A Victory for Rock Art in Portugal" (<http://www.saa.org/Publications/SAAbulletin/14-1/SAA14.html>)



도 2 실리콘 찌꺼기들이 군데군데 하얗게 남아 있는 것이 보이는 반구대 암면(1995년)

적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며 관광객을 접근시키기 위한 도로의 개설이나 서비스 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유적은 원래의 유적이 가지고 있던 환경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최근 암각화 유적은 다른 역사유적과 달리 가능하면 사람들로 부터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보존책들이 세워지고 있으며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암각화 유적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 관광객들의 접근을 막고 있으며 국립공원 내의 암각화 유적도 적극적인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타의 아치스 캐년(Arches Canyon)이나 자이언 캐년(Zion Canyon) 등의 암각화는 아예 그런 유적이 있는지도 안내가 되어 있지 않으며 모압(Moab)의 콜럼비아 강 유역 암각화 유적들은 안내센터에서 특별히 전문가의 답사를 위해서 만든 암각화 분포지도를 받아서 힘들게 찾아가야 한다.

### III. 암각화와 관광산업

#### 1. 보존을 위한 개발

현대사회에서 암각화를 원천적으로 사람들로 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며

또 무작정 격리하는 것만이 보존을 위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유적을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킨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제 암각화의 보존은 효과적인 개발과도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개발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들도 암각화를 사람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격리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효과적으로 암각화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암각화를 보고, 선사인들의 사회에서 암각화는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암각화 유적의 보존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암각화는 그것이 위치하는 환경에 그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각화의 보존은 주변환경과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6</sup> 특히 최근의 문화재 보존 경향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경관의 보존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최근 암각화 유적을 보유한 많은 국가들은 암각화가 있는 지역을 국립공원이나 문화재구역 등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카카두(Kakadu) 공원, 이탈리아의 나쿠아네(Naquane) 공원, 프랑스의 메르칸투르(Mercantour) 공원과 몽베고(Mont Bego) 공원, 스페인의 아르곤(Argon) 공원 등이 대표적이다.<sup>7</sup> 최근 유적과 관련한 경관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가 있는 대곡천변이 암각화 이외에도 많은 유적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지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암각화 유적에서 특히 경관의 보존이 중요한 것은 암각화의 제작에서 장소의 선택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암각화를 새긴 사람들이 특정 장소를 선택한 것은 그들의 신앙과 관련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암각화는 그것이 포함된 경관의 지리적 특징뿐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그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sup>8</sup>

경관의 관점에서 반구대 암각화를 생각해보면 반구대 암각화의 맞은편에 펼쳐지는 강변 언덕과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산, 대곡천 상류의 천전리 암각화와 사이의 이어지는 대곡천 계곡, 그리고 그 양자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말하여야 할 것이다. 대곡천 하

<sup>6</sup> Jean Clottes, 앞의 책, p.132.

<sup>7</sup> 위와 같음.

<sup>8</sup> 위와 같음.

류는 이미 사연댐의 건설로 인해 물속에 깊이 잠겨 있으나 반구대 암각화에서 그 상류로 천전리 암각화까지의 계곡은 아직도 원시상태 그대로의 환경이 상당부분 남아 있다. 그리고 이 계곡은 두 암각화를 제작한 사람들에 의하여 신성한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았으며, 그 신성성은 통일신라에까지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천전리 암각화에 남아 있는 신라시대의 글씨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암각화 유적과 주변환경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고 또 지역의 신성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한반도 안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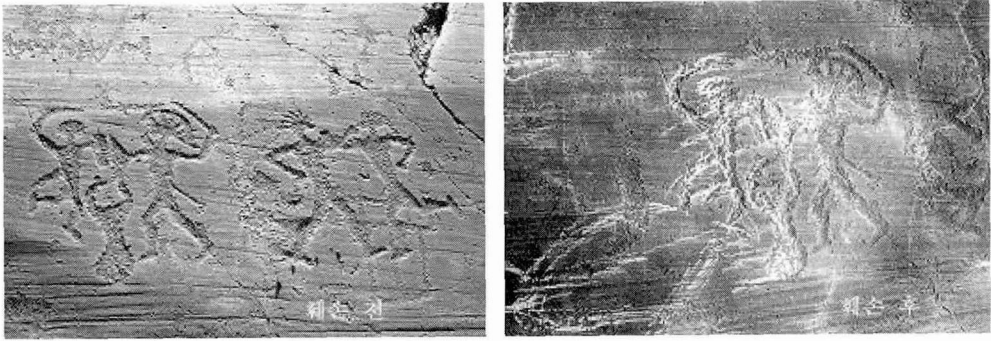
이러한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문화적 환경은 두 암각화 유적을 포함함으로써 문화경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암각화 유적의 보존에는 대곡천 계곡을 포함한 주변환경의 보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중국에서 백두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천지 아래쪽의 호텔 등 숙박시설들을 철거하고 있는 사례는 환경보존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 2. 관광개발과 암각화

근래에 들어와 암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 역사적으로도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는 암각화를 찾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게 되었고 지역의 행정당국자들은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데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이제 암각화 유적의 효과적인 보존책은 효과적인 개발책과 같은 선상에서 모색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선사유적의 관광거리로의 개발은 이미 전곡리의 구석기 유적이거나 고창 지역의 고인돌 유적이 공원의 조성이나 전시관의 건립 등 관광개발과 함께 축제를 열어 사람들을 모으는데 성공한 것에서 보듯 일반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료들에게 매력적인 아이টে็ม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유적의 보존과 개발은 무엇보다도 현지 주민의 이해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유적을 완벽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 주민들은 생활의 제약은 물론이며 재산권의 침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경우 유적은 급속도로 훼손될 것이 분명하며 주민들이 오랜 세월 지켜온 그들의 문화도 함께 훼손될 것이다. 유적의 보존과 개발은 주민의 이해와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도 3 관광객에 의한 발카모니카 유적의 훼손 상태

([http://www.rupestre.net/tracce\\_php/modules.php?name=News&file=article&sid=39](http://www.rupestre.net/tracce_php/modules.php?name=News&file=article&sid=39))

따라서 개발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암각화가 가진 다양한 의미가 연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암각화와 그를 둘러싼 경관의 보존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후 개발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또한 유적의 개발은 같은 성격의 유적이라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최근 반구대 유적의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들이 있었을 때 발카모니카 유적이나 몽베고 유적 등 유럽의 암각화 유적들의 보존 또는 개발 사례가 언급된 적이 있었다. 당시 행정당국의 개발정책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 유적들의 일부가 관람객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 직접 손으로 만질 수도 있게 한 곳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알프스 지역이나 중국, 몽골 그리고 러시아 등의 암각화 유적은 분포나 수에 있어서 우리와는 현격하게 다르다. 위의 나라들은 대체로 암각화가 분포된 범위가 수만 평에서 수십만 평에 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때로는 길이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수만 점에서 수십만 점의 그림들이 분포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조사하는 것은 엄청난 인력 시간 비용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 중에서 해당 지역의 암각화를 완벽하게 조사한 예는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적을 관광객에게 개방한다고 해도 관광객들은 극히 일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아주 소수의 암각화에 관광객들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도 암각화 유적 전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나라들과 지역들은 일반인들이 허가 없이 접근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관광객들을 부분적으로라도 암각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 발카모니카 유적도 최근 관광객들의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실이다<sup>3)</sup>

그러나 우리나라의 암각화는 이들과 달리 오직 하나의 바위면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나마도 울산의 반구대와 천전리 유적, 경주의 석장동 유적, 고령의 양전리 유적 등 몇 곳을 제외하면 크기도 길이와 폭이 겨우 2-3미터에 불과하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것보다 가치가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성격이 다름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암각화는 일부분의 훼손이 바로 유적 전체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암각화 유적의 보존이 특별히 더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적은 수의 암각화 유적이면서도 동북아시아 암각화 문화의 보편성과 한반도 선사시대의 독특한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세계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명분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세계 암각화 유적의 분포나 지역적 특성을 볼 때 반구대나 천전리 암각화를 비롯한 한국 암각화들은 당연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국제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sup>10</sup>

그러므로 한국 암각화의 보존 문제는 풍부한 암각화 유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며 더구나 이를 관광목적으로 개발하는 데에는 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 3. 암각화 유적 개발의 절차

여기서 반구대 암각화 유적과 같은 문화유산을 개발하는 경우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보자.

첫째, 유적의 철저한 현장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유적의 성격이 규명되어야 한다. 물론 세세한 부분에게까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대체적인 최대공약수를 추출해내고 유적의 보편적인 성격을 이끌어내는 것은 연구자들의 공동조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가능하다.

둘째, 공동조사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 유적의 가장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연구되어야 한다. 이는 자연과학과 고고미술사학, 그리고 환경관련분야의 학자

<sup>9</sup> Anna Maria Basche, "Valcamonica, vandalismo!" ([http://www.rupestre.net/tracce\\_php/modules.php?name=News&file=article&sid=39](http://www.rupestre.net/tracce_php/modules.php?name=News&file=article&sid=39))

<sup>10</sup>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암각화 유적은 모두 13곳으로 알제리의 Tassili-n' Ajjer 유적, 리비아의 Acacus 유적, 아르헨티나의 Cueva de los Manos 유적, 오스트레일리아의 Kakadu 유적, 브라질의 Capivara 유적, 멕시코의 Sierra de San Francisco 유적, 스페인의 Levant 유적, 포르투갈의 Foz Coa 유적, 프랑스의 La Vézère 유적, 이탈리아의 Valcamonica 유적, 스웨덴의 Tanum 유적 그리고 노르웨이의 Alta 유적 등이다.

들이 학제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효과적인 보존책이 나오면 그에 입각하여 보존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현지 주민들의 견해가 반영되어야 하며 현지 주민들의 전통적인 삶과 문화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넷째, 관광객들에 개방하는 경우 위에서 언어진 결론들, 즉 유적의 현상에 대한 정보, 유적의 성격, 효과적인 보존대책 등을 감안하여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이때 시설물의 설치나 관광객의 적정수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관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관람객을 위한 시설들에 대한 설계와 관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예산의 확보를 통하여 시공한다.

여섯째, 관광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을 포함한 관광사업의 운영은 가능하다면 현지 주민의 적극 참여하에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광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 또한 현지 주민에게 돌려져야 한다.

이상은 발표자가 상식적인 범위에서 단순하게 그려본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과정을 거치더라도 개발이 암각화 유적을 훼손시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단계는 대부분의 경우 무시되어 왔다. 대체로는 행정라인에서 개발계획이 세워지게 되며, 계획 또한 문화재 담당부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부서에서 주관한다. 문화재를 대상으로 개발하는데 문화재담당부서가 주부서가 아니라는 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행정관료들의 개발 계획이 대체로 문화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마인드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여 계획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데 목표가 두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지방정부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관광계획에 대해 중앙 정부는 법적 조항을 위반하는가 여부를 주로 검토하고 문화적인 차원이나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발계획이 일반에 알려지고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이미 예산이 집행되어 행정적으로 계획이 시행되는 단계이며 개발의 문제가 지적되어도 그것을 수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 IV. 유적 개발의 방향과 과정의 검토

### 1. 유적 개발의 방향

관광목적으로 반구대 암각화 유적을 개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작 관광의 주 대상인 암각화는 일년의 절반 이상이 물속에 잠겨 있어서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무시된 채 사업이 오랜 기간 진행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재정책과 관광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당연히 계획은 효과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해서 세워져야 했으며, 그렇게 되어야 결과적으로 유적의 훼손도 최소화시키고 관광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현지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개발은 이미 상당한 부분까지 진척되었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개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 따라서 이제 반구대 유적과 그를 포함한 경관의 훼손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가 최대의 현안 문제라 할 수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개발이 가지는 중요성은 단순히 반구대 암각화 유적의 보존과 개발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다른 암각화 유적의 보존 또는 개발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현재의 불합리한 개발을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과정을 되풀이하여 설명하지 않겠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어찌되었든 현재 개발은 진행되고 있고 그것도 전시관 건립을 비롯한 후반의 핵심적 사업들이 착공 직전에 와 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이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고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공정에서라도 바른 방향을 잡아 잘못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반구대 유적의 관광개발은 하드웨어적인 여러 요소들, 즉 도로의 개설이나 주차장 시설 등의 설치 등이 완공되었고, 관광객들을 위한 전시관 등의 시설들도 설계를 마치고 국가예산까지 지방정부로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언제라도 공사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울산 시민에게는 이미 울산을 상징하는 유적으로 되어 있어서 유적을 사람들과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개발을 통하여 관람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곧 반구대 유적의 개발은 유적의 보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반구대 암각화 유적의 개발과 보존은 천전리 암각화를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천전리 암각화는 반구대 암각화에 비해 다양한 양식의 그림들이 중첩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많은 명문기록들도 같은 바위면에 새겨져 있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유적이다. 이 두 유적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고 같은 문화적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유적은 같은 맥락에서 개발 또는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두 유적은 같은 물줄기의 상류와 하류에 겨우 2킬로미터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두 유적을 연결하는 대곡천 계곡과 함께 보존되어야 두 유적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적의 개발은 그 목적을 유적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데 두어야 하는 것이며 반구대를 찾는 관광객들은 자신이 유적의 보존에 힘을 보탤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적합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고 관광객들이 유적을 훼손하지 않고 선사시대의 자연환경을 즐기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개발과정에 대한 검토

그러면 반구대 유적의 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유적을 보존하고 또 관광객들과 현지 주민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미 늦은 감이 있으나 일단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보존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유적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반구대 유적의 개발은 2장에서 제시된 개발의 여섯 단계 중 이미 다섯 번째 단계에 와 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에 이르는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첫 번째, 유적의 철저한 현장조사와 연구는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1971년 12월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견된 이후 반구대 암각화의 정식 보고서는 1984년에야 처음 간행되었다.<sup>11</sup> 보고서는 당시 한국 대학에서 출판된 보고서로서는 드물게 대형 컬러사진을 풍부하게 넣고 흑백사진도 유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실고 있다. 그러나 사진의 인쇄는 암각의 상태를 상세히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실측도면도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

<sup>11</sup> 황수영 · 문명대, 『반구대 암벽조각』(동국대학교출판부, 1984).

려운 부분까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역시 정밀성에서 연구자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암각화 조사의 기술적 수준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후 반구대 암각화의 조사는 2000년에 와서야 울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는데<sup>12</sup> 역시 짧은 조사기간과 사진과 실측기록 방법에서 정밀 상태의 기록을 남기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후 지질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보존대책의 연구조사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과 독일 전문학자들의 합동조사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2003년에 보고서가 간행되었다.<sup>13</sup> 그러나 문화유적의 보존을 위한 조사단에 역사학이나 고고학, 미술사학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으며 자연과학적 조사방법에서도 적절치 않은 방법 등을 사용했고 그로 인해 오히려 암각화 자체가 더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sup>14</sup> 2년전 문화재청에서 레이저스캐너를 이용한 삼차원 방식의 실측작업이 있었으나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된 이후 24년이 지나서야 국보로 지정된 것만 보아도 그 중요성에 비해서 얼마나 일반시민이나 문화재 관리당국 모두의 관심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충분한 조사작업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암각화 유적의 조사가 가진 문제의 하나는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면에 국한되어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암각화의 조사는 당연히 암각화를 새긴 사람들이 왜 그 바위를 선택했는가에 주목하여야 하며, 따라서 암각화를 포함하고 있는 주변 지역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누차 언급한 바 있다. 더구나 반구대 암각화에서 대곡천 상류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천전리 암각화주변까지의 대곡천 주변은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보존상태가 우수한 선사문화유적 지대이다. 이 지역에는 선사유적은 물론 지질시대의 공룡발자국에서 역사시대의 서원이나 절터 등 많은 유적이 있음은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반구대 암각화 주변지역의 정밀 지표 조사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도로건설 부지와 건축 부지 등에 국한해서 간단한 조사가 있었을 뿐이다.<sup>15</sup>

<sup>12</sup> 울산대학교 박물관, 『울산 반구대 암각화』(울산대학교 박물관·울산광역시, 2000).

<sup>13</sup> 울산광역시, 앞의 책.

<sup>14</sup> 이수근, 앞의 논문, p.67.

<sup>15</sup> 2001년 간행된 반구대 유적 진입로와 반구대 암각화에서 천전리 암각화 사이의 대곡천 계곡 지표조사에서 조사된 유적만 모두 28곳이며 여기에는 공룡발자국 등 지질시대부터 선사시대 암각화 유적, 통일신라시대 가마터를 비롯하여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폐사지, 서원 등 전 역사시대를 망라하고 있다. 울산문화재연구원·울산

두 번째, 조사결과에 따른 여러 관련 학문분야의 학제적 연구는 첫 번째 단계인 현장조사 결과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바람직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까지의 반구대 암각화 연구는 개개 연구자들이 저마다 개별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매우 상이한 해석을 내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반구대 유적의 연대만 해도 구석기시대에 제작되었다는 견해에서 삼국시대 초기 제작설까지 다양하며 같은 그림에 대한 해석도 매우 상이한 견해들이 대립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물론 학계에서조차 반구대 암각화가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암각화 관련 전시관을 만드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학자의 학설을 소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시관이 완성된 후 이곳을 찾는 전공학자들은 저마다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할 것이고 전시장의 관리를 맡은 쪽에서는 앞으로의 전시관리에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보존책 또한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보고서와 대책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전공학자들 개인의 다양한 견해는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엇갈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미 이상헌, 전호태 교수 등이 1994년과 1996년에 천전리 암각화와 반구대 암각화의 과학적 보존책에 대해 발표한 바 있고, 전호태는 2000년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sup>16</sup> 이 글들은 이 암각화 유적들이 제작 당시의 환경조건을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의 보존대책 연구보고서는 암각화의 보존대책으로 댐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 터널을 뚫어 대곡천 유로를 변경시키는 방안, 차수벽을 쌓아 암각화를 댐으로부터 격리하는 방안 등 세 안을 내놓고 결론적으로 유로변경안과 차수벽안이 가능한 안이라고 제시했으나<sup>17</sup> 현재 많은 견해들은 이 두 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보고서는 불가능한 안을 결론으로 제시한 꼴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보존에 대한 조사연구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을 소비한 채 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없게 되어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적의 개발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유적의 개발에 선행되는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는 첫째, 둘째 단계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는 이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할 행정적 대책마련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따라

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산 반구대 암각화유적 진입로 주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울산광역시, 2001).

<sup>16</sup> 전호태,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론」, 『한국암각화연구』 2(한국암각화학회, 2000), pp.47-67.

<sup>17</sup> 울산광역시, 앞의 책.

서 당연히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그를 위해 암각화 유적을 개발하는 것도 기초적 단계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유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V. 유적의 개발 방안

### 1. 개발 방안의 새로운 모색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반구대 암각화 유적의 개발은 시작되었고 반구대 유적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와 주차장, 그리고 관람객들을 위한 산책로까지 마련되었다. 또 상당한 규모의 전시관도 건물설계와 전시설계가 완료되고 부지도 확보되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기초작업과 연구가 완성될 때까지 개발 자체를 유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시한 첫째에서 넷째의 단계를 가능한 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현재까지 만들어진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들은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전시장이나 현장 안내 등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들이 종합되고 그로 인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관람객들이 얻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광시설의 운영이나 현장의 관리 및 안내 등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안은 현재 건립하려는 전시관을 연구소로 바꾸는 일이다. 현재의 당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전시관의 위치 때문이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반구대와 천전리 두 유적 사이의 대곡천 유역의 경관이 매우 뛰어난 선사시대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유적의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경관지이기 때문이다<sup>4</sup>. 이에 대한 수년간의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무시하고 대곡천변에 전시관을 짓는 결정을 한 것은 유적의 관광개발 과정에 암각화 유적에 대한 전문연구인력이 참여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은 지금이라도 연구기관의 설립을 통해서 풀어야 하며 또한 암각화 유적과 유적을 포함하는 관련지역의 정밀조사 연구도 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소에서는 암각화 유적의 조사와 연구작업을 맡게 되며 과학적인 기록방법과 보존방법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암각화의 기록자료를 학자들에게 제공하여 보다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연구소는 현재의 대학에 설립하거나 연구 인프라가 비교적 좋은 울산시내에 위치하는



도 4 전시관 건립부지에 인접한 풍경

것이 바람직하다. 출발단계에서 연구소의 규모 역시 클 필요는 없으며 5명 이하의 연구원으로 연구조사의 계획과 결과의 정리, 그리고 연구조사작업의 진행을 행정적으로 돕거나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연구인력은 기존 학계의 연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연구소 자체에서 별도의 대규모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충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연구기관이 없이 전시시설만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전시관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전시관은 앞에 말한 연구소의 부속시설로 건립하여야 한다. 전시관은 연구소의 부속시설로 하고 연구소에서 연구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시관을 통해 보여주게 된다. 또 관람객들을 교육시키고 유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적지 현장관리 기능만 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전시관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규모가 클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전시로 반구대와 천전리 암각화 및 주변지역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는 정도의 전시시설과 4-5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 정도면 된다.

이런 정도의 규모라면 이미 개발된 현재의 주차장과 인접하여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확보된 전시관 부지는 가능하면 자연상태로 복원시키도록 하며 아니면 숲을 조성하고 숲속에 벤치 등을 놓아 관광객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시설을 갖추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광객에 대한 교육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암각화 유적의 관람객 프로그램에는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이란 관람의 방법이나 태도와 관련된 것이 있고 암각화 자체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것이 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관람객들은 왜 암각화 유적이 보호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관람하여야 하는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암각화의 신비를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으며 긴 관람 코스를 흥미 있게

마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암각화 유적과 관광

암각화 유적을 관광의 대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암각화 앞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발의 목적이 보존에 두어진다면 당연히 관광객들은 암각화 보존을 위한 통제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즉 암각화 유적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첫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적절한 관광객 숫자이다. 현재 많은 지자체는 가능하면 많은 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결과 많은 문화유산들이 관광객들로 인해 홍역을 치루고 있고 훼손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훼손의 위험성이 역사유적에 비해서 몇 배 높은 선사암각화는 그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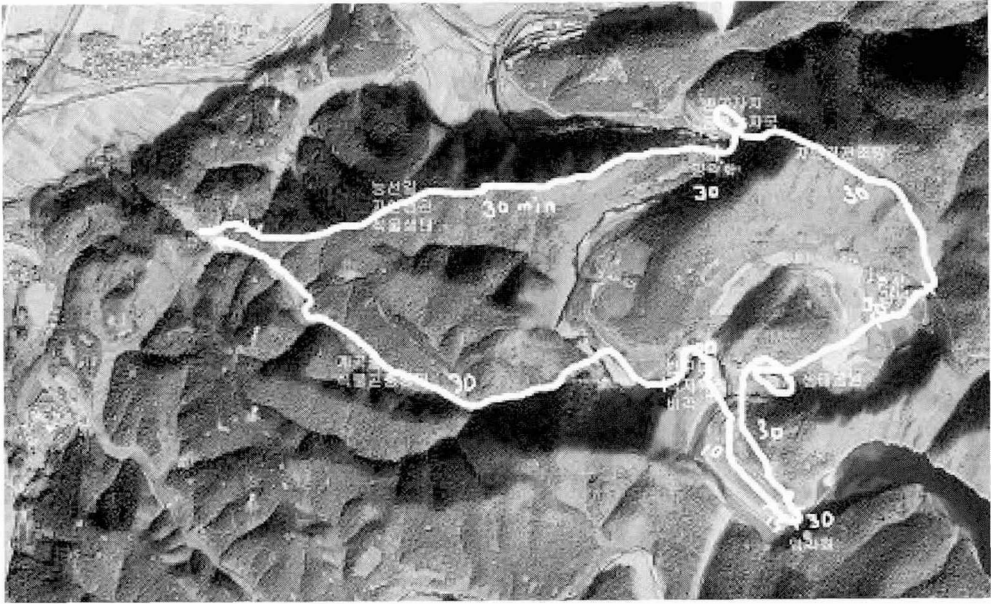
다음으로 관광객을 위한 시설의 관리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반구대 암각화 유적의 개발과정에서도 도로 주차장 등의 건설과 교통통제 등 관리에서 건설 및 관리부와 주민들의 마찰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시설과 관광프로그램의 관리와 운영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적이 있는 지역에서 조상대로 살아온 주민들은 어느 의미에서 유적의 주인이다. 그러나 개발의 최상위 목적을 보존에 둘 경우 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불편은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주민의 동의 없이 개발하고 그 결과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하게 된다면 개발에 따른 주민의 저항은 당연하다. 그래서 세계의 중요유적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 아래 관리와 개발이 계획되고 운영된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멕시코의 시에라 데 산 프란시스코(Sierra de San Francisco) 유적은 유적과 가까운 도시인 산 이그나시오(San Ignacio)에 박물관과 방문객을 위한 건물을 세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로 인한 관광수입은 지역 사회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고용이 증대되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들에게 가이드를 하고, 또 효율적인 보호관리인으로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sup>18</sup>

이러한 사례는 반구대 유적의 관광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주차장과 전시관시설의 관

---

<sup>18</sup> Jean Clottes, 앞의 책, pp.130-131.



도 5 필자가 고안해 본 반구대와 천전리 암각화 유적 관람을 위한 트래킹 코스

리에서 유적의 가이드까지 주민들이 할 역할은 많다.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 등지의 유적에서처럼 반구대 천전리의 암각화와 계곡의 관광은 반드시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반구대 유적이 있는 대곡천 계곡처럼 관광 동선이 길고 성격이 서로 다른 다양한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또 관광객들의 우발적 훼손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반드시 안내인의 동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긴 동선으로 인한 장시간의 도보관광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할 수 있으며 적당한 거리와 시간에 따라 휴게시설이나 간단한 식사도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위한 마차 등의 이동수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쾌적한 휴식을 위한 휴게소나 식당 등도 필요할 것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반구대 마을은 대곡천에서는 좀 떨어져 있으나 오히려 휴식이나 기념품의 판매, 그리고 식사를 위한 시설을 두기에는 적당한 위치일 수 있다.

〈도 5〉는 필자가 고안해 본 암각화 유적의 관람객을 위한 트래킹 코스이다. 트래킹의 순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현재의 주차장을 출발하여 주차장 북쪽의 능선을 타고 천전리 암각화로 향한다. 중간에 능선 위에서 주위의 자연경관을 둘러볼 수 있고 능선상의 생태도 관찰할 수 있다. 천천

히 휴식을 취하며 걸어 암각화까지 간다. 약 30분이 소요.

(2) 천전리 암각화를 관람하고 인근의 반고사지와 공룡발자국을 둘러본다. 약 30분 소요.

(3) 공룡발자국에서 천전리 암각화 맞은편 산길을 타고 산의 능선으로 오른다. 능선길을 이용하여 산 너머에 있는 반구마을까지 이동한다. 능선상에서는 반구마을 앞의 독립된 산봉과 멀리까지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약 30분 소요.

(4) 반구마을에서는 가벼운 식사와 차를 마실 수 있고 기념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약 30분 휴식.

(5) 반구마을에서 현재의 '사진이 있는 풍경'이라는 식당이 있는 곳까지 걷는다. 이 식당 앞은 늪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을 생태공원으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늪지의 생태를 즐기도록 한다. 약 20분 소요.

(6) 생태공원에서 반구대 암각화까지 이동하여 암각화 유적을 관람한다. 약 30분 소요.

(7) 반구대 암각화에서 강변을 따라 반구서원, 刻字 유적, 비각 등을 거쳐 반구교를 건너 주차장으로 돌아온다. 반구교에서 주차장까지는 포장도로가 아닌 계곡 쪽으로 소로를 내고 여러 생태환경을 돌아보면서 걸도록 한다. 대략 1시간 소요.

트래킹에 걸리는 시간은 모두 3시간 50분이다. 이 시간 동안 관광객들은 반드시 지정된 안내인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안내인은 각 코스를 걸으면서 곳곳에 관련된 설화나 생태환경, 인물 등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고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관광객들은 피로하지 않고 약 네 시간의 암각화 관광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관광객들을 더 오래 머물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반구마을에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가 마련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관광객을 위한 안내소가 주차장과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관광객들의 안내센터 역할을 해야 할 전시관은 주차장에 인접한 곳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 VI. 선택의 시점

어느 나라건 암각화 유적에 있어서 관광객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유적이 관광객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가에 목적이 있고, 그래서 암각화 유적은 관광을 위한 개발이 아닌 암각화 유적을 위한 관광객의 효과적인 관리(Visitor Management)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암각화를

비롯한 바위그림 유적들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가 기관들과 고고학 연구기구 등 학술 기구들이 각기 일정한 역할을 맡아 활동한다. 바위그림이 많은 인도의 경우 국립문화재보존연구소(The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for Conservation: NRLC), 인도 국립 미술문화유산 트러스트(Indian National Trust for Art and Cultural Heritage: INTACH), 인도 고고학연구소(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국가고고국(State Archaeological Department) 등이 바위그림 유적의 보존에 함께 역할을 맡아 일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관리사례로 드는 유적은 캘리포니아의 아이어스 락(Ayer's Rock)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적의 관광객을 위한 시설은 유적에서 400미터 떨어진 주차장에서 끝나는 진흙의 비포장도로와 세 개의 안내판이 전부이다. 그리고 현지의 자원봉사자들과 보이스카웃, 그리고 문화재 해설을 담당한 안내인들에 의해 관광객들이 가이드를 받음으로써 암각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재미를 느끼며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유적에 관한 많은 인쇄물들이 제공되고 있다. 매우 단순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효과적인 유적 관리를 하며, 관광객들에게도 편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지질조사소(USGS)와 국토관리국(BLM) 등이 각계의 전문가들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sup>19</sup>

이와 반대로 우리는 지금 암각화와 관련된 여러 학술 연구 기구들과 문화재 관리 당국, 그리고 유적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관광의 대상으로 개발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대립하여 효과적인 관리체계조차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말로는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문화유산이라고 모두 말하지만 실제로는 낱알이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되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보존 관리의 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 유적의 경우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개발이 아니라 댐의 물 속에 잠겨 있는 암각화를 어떻게 물 밖으로 내보내서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개발의 문제는 거론될 수 없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반구대 암각화를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모두 쉽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물 밖의 원상태로 돌린다는 전제가 성립되면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20</sup>

이제 반구대 암각화 유적의 개발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이미 돌이킬 수

---

19 David S. Whitley ed., *Introduction to Rock Art Research*(Walnut Creek, California: Left Coast Press, 2005), pp.158-159.

없는 상태에 와 있다. 그러나 지금이 기회일지 모른다. 아니 어떻게든 기회로 잡아야 한다. 이 개발계획은 이미 지난 2002월드컵을 목표로 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세워지고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2월드컵이 지나고 또 2006월드컵도 끝난 지금도 개발계획은 끝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다른 한편 여전히 우려할 만한 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거리인 것이다.

나는 앞에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열거하였지만 지금 진행된 결과들을 수용하면서 아직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계획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중앙정부의 문화재 관리당국(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계획의 주체인 울산시, 그리고 암각화 연구자를 포함한 미술사학자, 고고학자, 수리 및 토목공학자, 시민단체 등이 협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개발 우선의 계획을 보존 우선의 계획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적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관광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현지 주민들이나 행정당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반구대 암각화는 천전리 암각화와 함께 한국암각화 유적을 대표한다. 동북아시아 전체의 암각화 분포지역의 동쪽 끝에서 동북아 암각화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한국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세계 암각화 분포상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특히 바위면에 가득 새겨진 고래그림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이다. 따라서 이 유적은 천전리 암각화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국제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대륙천변의 선사환경도 함께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암각화의 원상복구를 위해 이런 저런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또 그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계산하는 동안,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또 한 번 없어지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국보 반구대 암각화는 물 속과 물 밖을 오가면서 서서히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암각화 유적 나아가서는 문화유적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 세계적인 보존 사례를 만드는가, 아니면 경제논리에 문화논리가 먹혀서 세계 문화재 보존사에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를 만드는가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

<sup>20</sup>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성익환 박사는 강변 여과수를 태화강으로 보내는 공정으로 하루 10만 톤 이상의 맑은 물을 울산시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며, 이로써 사연댐 수위를 낮추어 반구대 암각화를 수면 위로 드러냄으로써 부족하게 될 용수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2006년 12월 16일 한국암각화학회 추계학술대회 종합토론)